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 예수 모든 중심되시네 / 시편	다같이
대표기도		허영재
*성경봉독	요 17:11-13, 23-26	허영진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 내 구주 예수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요 17:11-13, 23-26)

11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리 채프먼이 쓴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려깊은 태도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피부로 느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직접적 언어 표현은 아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보다도 직접적인 언어적 사랑 표현을 더 적게 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니 그 이유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릴 적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은 제게 사랑보다는 '순종'의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자기희생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이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정작 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마음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특별히 구원사역과 관련한 삼위 하나님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인용하여 기록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1인칭 고백을 듣게 하여 줍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 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반역에 오르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다가, 때가 되어 아버지께 다시 맡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초림과 재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는 철저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동일하게 공유하셨습니다만, 끝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상호 존중과 자발적 순종의 발로입니다. 이런 겸손은 확대되어 세례 요한과 성령님에게서도 보입니다.

이처럼 한 목적,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 간의 자발적 겸손과 순종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에는 절제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절제함 속에서도 스며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습니다. 주님의 행동, 태도, 말투, 표정,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결핍과 죽음과, 연약함과 고통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죄로 인해 창조 원리에서 어긋난 것이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발로였습니다.

말씀산책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우리와의 관계 설정에 담겨 있습니다. 즉, 그분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 분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양들을 위해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분 사랑의 정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까지 아버지께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절제함이 배어 있습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신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읽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내게도 사랑의 언어로서 마음에 터치가 되는지요?
2.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사랑받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나요?
3.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과거에 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드셨는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원하시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닦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모임

일시: 6/3(토), 7pm

새가족 수료

백다나, 김찬웅, 김재혁, 변정식, 양승욱, 경해리, 한찬영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청년부 신청 QR

환송

이보배(캘리포니아 이주)

일대일 양육 훈련 동반자 모집

문의 : 추재욱/ 이순희 집사 (soonhoe.lee@gmail.com)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캠프기간 : 7월 10일~28일(3주간)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 문의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Arise 찬양기도회

6/2(금) 8pm, 본당
토요무릎기도회는 쉽니다.

음악부 광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섬길 찬양대 지휘자 찾습니다.
접수기간 : 5/1~5/31
문의 : akpc-music@akpc.org

선교기금 마련 음식판매 잠정 중단

오늘 5/28일까지만 판매

생명의 삶 6월호

권당 5불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제 51권 21호

05.
28.
23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